

일본 원자력 PA의 문제점

藤井 信幸

일본원자력문화진흥재단 기획부장

지

금이야말로 원전 PA 활동에 있어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95년 12월, 몬주 고속 증식로 원형로에서 발생한 나트륨 누출 사고와 관련된 모든 의문점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금년 3월 도카이 재처리 공장의 비튜멘(bittumen) 설비에서도 화재와 폭발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PNC)이 소유하고 있는 이들 두 개의 설비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는 PNC 자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그 동안 원자력 설비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는데, 이 사건으로 상당수의 사람들은 근본적인 의문마저 제기하고 있다.

왜 그렇게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가?

왜 국가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가?

왜 사고 관련 정보들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과 함께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실질적인 신뢰는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는 현재 가동중인 53기의 원전(45,240MW)이 일본의 1차 에너지 공급량의 약 12%를 담당하고 있으며, 총전력 설비 용량면에서도 34%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산업의 장기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원전 설비 용량은 70,500MW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핵연료 주기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이야말로 원자력의 장기적 발전에 필수적이므로 우라늄 농축 공장,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매립 센터, 그리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센터와 같은 시설은 이미 가동중에 있다.

현재 건설중에 있는 상업적 목적의 재처리 공장도 2003년경에는 운전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면에서 또 하나의 초석이 될 방사성 물질이나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용이 의약품·농업·산업·환경 보호, 그리고 인간

복지 증진 등에 광범위하게 확산됨으로써 보다 나은 삶에 기여하고 있다.

즉 원자력의 개발에 따른 산물물 사회 각 부문에서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표준적인 삶의 유지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의 지속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확신을 얻는 것과 '국민을 위한 원자력'이라는 점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원자력 정책에 관한 일련의 라운드 테이블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서 일본 정부는 원자력의 투명성 제고와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일반 국민의 참여는 물론 실상을 공개할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

일본의 최근 원자력 PA의 문제점

지난해 일본의 원자력 개발 사업을

돌아보면 입지 대책 문제에서 다소 진전을 보았음을 알 수 있다.

96년 7월에 히가시도리 원전 1호기 건설 사업이 전원개발기본계획에 추가되었고 96년 11월과 12월에는 처음으로 공청회가 시카 원전 2호기와 하마오카 원전 5호기에서 각각 열렸다.

97년 2월에는 동경전력과 관서전력에 의해 선도되고 있는 11개 전기사업자들이 2000년과 2010년에 각각 경수로(LWR)에 우라늄·플루토늄 혼합 산화물 연료(MOX)를 사용하고 나아가 전면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8월에 가타현 마키에서 있었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시민 투표에서 투표자 60% 이상이 이 계획에 반대한 것은 지방에서조차 원전 건설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금년 3월 도카이 재처리 공장의 비튜벤 고화 설비에서 발생한 화재와 폭발 사고는 국민들 사이에 원자력에 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원자력 PA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하겠다.

앞서 제기한 현안 문제점에는 신규 발전소 부지 확보와 원전의 추가 건설, MOX 연료의 사용, 고속 증식로의 개발, 그리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와 처분 문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현안 문제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축하는 데는 원자력 정책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들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이해와 확신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전체적인 에너지 공급의 범위 안에서 원자력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PA 활동을 추진할 때 유의할 점은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PA 활동은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여 쌍방간에 이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JAERO의 최근 원자력 PA 활동

일본원자력문화진흥재단(JAERO)은 수년간 원자력 PA 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원자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원자력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중인 운동을 통해 JAERO는 일반 국민·교육자·대중매체, 그리고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대화, 즉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함으로써 세미나나 심포지엄, 공개 토론회 등에서 전문가들이 강의하고 질문에 답하도록 하며 원자력 시설에 대한 방문도 추천하고 있다.

이러한 PA 활동은 대상 국민들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원전 주변이나 도시 거주 지역 모두 사회 전반에 걸쳐 원자력에 대한 인식과 합의를 공유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나는 본 논문에서 최근 JAERO의 몇 가지 원전 PA 활동에 대해 그 개념과 함께 다음 4가지 분야, 즉 시민과 함께 하는 활동, 교육 지원, 언론 매체 정보 제공, 그리고 지역 사회 노력의 지원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자 한다.

1. 시민과 함께 하는 활동

가. 원전 전문가의 활용

시민들의 광범위한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JAERO에서는 세미나·강연회·공개 토론회 등에서 에너지와 환경 문제와 같은 일반적인 주제는 물론, 방사선과 방사능의 사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원자력 발전의 메커니즘과 안전성, MOX 연료와 원전 연료 주기, 그리고 원전 연료 수송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주제를 다룰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다.

JAERO는 96 회계 연도중에 197 회에 걸쳐 10,217명이 참석한 이러한 모임에 전문가를 보냈다.

이들 사업 중 여섯 가지는 반원전 단체나 몬주 고속증식로(FBR) 반대 단체들의 요청에 의한 공개 토론회(panel discussion)였다.

이러한 노력의 목적은 일반 국민들

과의 쌍방 커뮤니케이션(two way communications)을 촉진함과 동시에 그들이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 그리고 환경 문제에 관한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다.

JAERO는 적어도 다섯 명만 참석할 것이 예상되더라도 어떤 모임이나 어느 곳에든지 전문가를 보낼 예정으로 있다.

사람들이 전화나 팩스를 통해 회의의 시기·장소·주제를 가지고 요청만 하면 JAERO는 적임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참여시킨다.

회의 참석자들에게 언제나 질문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며, 원자력 에너지에 관한 의문점 해소나 불안감 해소 등 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나. 원자력 감시 시스템

원자력 감시 시스템은 원자력 개발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확인하여 국가 원자력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77년 일본 과학기술청(STA)에 의해 구축되었다.

몬주 사건이 발생되기 훨씬 이전에 일본 47개현의 추천에 따라 일부 시민들에게 모니터 요원이 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95년 12월 몬주 사건 이후에 원자력에 대한 반대 여론이 증가함에 따라 이 감시 시스템을 재검토한 후 변경시켰다.

이리하여 96년에는 1,074명의 모

니터 요원이 선정되었는데, 574명은 각 현의 추천 케이스이고 나머지 500명은 일반 신청에 의한 것으로, 활동기간은 2년이다.

모니터 요원들은 주기적으로 질문서에 응답하고 원자력 관리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게 된다.

다. 신문과 라디오

최대로 광범위한 범위의 사람들에게 대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JAERO는 「에너지에 대한 대화」라는 주간 칼럼을 4개 일간지인 요미우리·아사히·마이니찌, 그리고 산케이 신문에 연재하고 있다.

동 칼럼은 특별히 현재 관심을 끌고 있는 에너지와 환경,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과 안전성, 방사선의 효과와 이용, 체르노빌 사고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방사성 폐기물, 그리고 경수로의 MOX 연료 사용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관해 토론함으로써 에너지와 원자력에 관한 정보를 보급시키고 있다.

1년 동안 게재된 이들 모든 칼럼은 책으로 만들어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요 일간지에 실리는 이들 칼럼 외에 지방 신문에서도 늘상 문제점들을 어필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는데, 특히 몬주 사고가 발생한 후쿠이 현에서 보다 광범위한 견해를 수렴함으로써, 그러한 사례를 원자력 개발은 물론 원자력에 대한 불신감과 우려를 해소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다.

96년 8월부터는 후쿠이 FM방송에서도 「에너지 아 라 카르트」라고 불리는 라디오 상업 방송을 하루에 두 번씩 방송하고 있다(아 라 카르트(a la carte)는 '좋아하는 요리'라는 의미. Dinner a la carte는 좋아하는 요리로 된 만찬을 말함).

2. 교육 지원

JAERO로서는 교육자들과의 협력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차세대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은 에너지와 환경과 같은 문제 해결에 특히 중요하며 국가 장래의 관건이 되므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일본에서는 중·고등학교 수준의 원자력 관련 학과들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고 있다.

92년 JAERO가 유럽과 일본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자력과 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 고등학교의 원자력 교육이 유럽의 그것에 비해 훨씬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본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적인 과학 지식과 관련된 질문은 잘하고 있는 반면, 원자력 발전의 원리와 방사능의 성질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유럽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현저하게 뒤떨어지고 있었다.

가.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연구

21세기가 곧 도래함에 따라 에너지와 환경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관

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90년 JAERO는 젊은이를 위한 적절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와 환경에 관한 교육 포럼을 구성했다.

이 포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JAERO는 94년 문부성(MOE)과 교육 기관 및 학계와 산업계 등에 에너지 과목에 대한 교육 방법의 개선 방안을 제의했다.

학교에서 에너지와 환경에 관해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제의 내용을 추진할 연구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어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3개 분과 위원회(지리·역사·시장(市政), 과학, 가정 경제)를 결성하여 비교 교육 과정의 연구 차원에서 에너지와 환경 과목의 교육에 필요한 가이드 라인도 설정했다.

마침내 이 제의는 동경 시내 9개 고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비교 교육 과정 연구는 자원에 대한 고려 사항, 에너지의 필요 조건과 환경, 음식, 인구, 정치학, 경제학 그리고 가정 생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금년 7월 위원회의 연구 보고서가 제의서와 함께 문부성(MOE)과 현(縣)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었다.

JAERO는 연구 보고서의 결과를 존중하여 교육 과정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놓고 현재 학술 및 산업계와 협의중에 있다.



일본의 시카 2호기에 대한 공청회. 원자력 에너지의 지속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확신을 얻는 것과 '국민을 위한 원자력'이라는 점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나. 에너지·환경 세미나

학교의 과학 교과 과정의 일부로서 에너지 및 환경 문제에 대한 교육을 옹호하고 있는 JAERO로서는 이들 주제를 어떻게 하면 보다 잘 교육할 수 있는가에 역점을 둔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하였다.

96년 이러한 세미나가 나하와 사뿐로 및 동경에서 도합 8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문부성(MOE)과 과학기술청(STA) 그리고 지방 교육위원회가 후원한 이 세미나는 해당 분야에서 잘 알려진 권위자들을 중심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였으며, 시설물을 직접 견학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수업중에 사용할 에너지와 환경에 관한 최신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을 위한

특별 기회도 제공하였다.

다. 중·고등학생 작문대회

10월 26일은 「원자력 에너지의 날」이며, 이의 관련 사업의 하나로 JAERO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중·고등학생들로 하여금 에너지와 원자력 및 환경에 대한 작문을 제출케 하고 있다.

금년이 중학생들에겐 22년째이며 고등학생들에겐 29년째가 되는데, 이 작문대회는 문부성(MOE)·과학기술청(STA)·통상산업성(MITI) 및 NHK 방송이 후원하고 있다.

신청서는 일본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생들에게 직접 우송하며, 지방 교육위원회의 협조도 아울러 요청하고 있다.

심사위원단은 에너지 및 원자력 전문가, 만화가, 삽화가 그리고 한명의

과학 해설자로 구성되며, 각 부문별로 3명의 대상(大賞)과 10명의 입상자를 선정하는데, 이들 수상자는 모두 과학기술청장으로부터 상장과 부상을 받게 된다.

중등부와 고등부 양 부문의 대상 수상자들은 한국 방문 기회도 부여받는다.

라. 실험 방사선 세미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방사선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는 물론, 방사선 측정 장비를 사용하는 실험 방사선 세미나도 전 일본의 고등학교에서 개최하고 있다.

3. 언론 매체 정보 제공

원자력에 대해 의문을 갖도록 여론형성의 주된 역할을 하는 언론 매체들에게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언론 매체들은 통상 원자력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 기사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기사나 보도 내용 등이 종종 추측과 편견으로 채워지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나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엔 더욱 그러하므로 언론 매체들로서는 정확하고도 완전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JAERO와 같은 제3자적 조직이 긴급 사태 같은 와중에 언론 매체 종사자들을 교육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JAERO가 할 수 있고 또 할 일이란, 정기적으로 원자력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언론 매체에 제공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구축하여, 특히 긴급 사태 발생시 언론 매체들의 질문에 즉시 대답하는 그런 일들일 것이다.

가. 보도 자료

JAERO는 원자력 당면 문제에 관한 실상과 배경을 편집하여 보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언론 매체에게 배부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JAERO는 96년 4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원하는 체르노빌 사고 관련 국제 회의를 마치고 '체르노빌 이후 10년…… 결과와 해에 할 일'이라는 제하의 보도 자료를 만든 바 있다.

나. 원자력 세미나

JAERO는 언론 매체 종사자들로 하여금 고준위 폐기물 처리와 경수로에서 MOX 연료의 사용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들의 프리젠테이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96년에는 체르노빌 사고와 방사선 효과에 대해 일본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포함하여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제적 경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다. 해외 시찰

JAERO는 언론 매체 직원들로 하여금 외국의 원자력 에너지 개발 상황을 돌아보도록 해외 시찰을 추천하

고 있다.

이러한 해외 시찰은 거의 연례 행사로 실시되고 있는데, 유럽·미국·옛소련·중국·호주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외 시찰단은 발전소만 견학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 국가의 행정 및 규제 기관과 함께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과 연구 기관도 방문한다.

또한 시찰단은 우리나라 자원 개발,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와 처분, 그리고 핵연료 주기와 같은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나가는데, 참가자들은 이러한 주제를 특종의 하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들 주제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연구 모임

세미나와 해외 시찰뿐만 아니라 신문 기자들을 위한 연구 모임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이 연구 모임은 원자력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솔직히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JAERO는 이 모임을 월 1회 개최하고 있는데, 과학 보도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언론 매체 사람들과 원자력 산업계 전문가들을 초빙한다.

참석자들은 일상적인 회의나 그밖의 일반 행사에서 제공받는 정보만 입수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질문도 하고 답변을 듣기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JAERO는 언론

매체들로 하여금 원자력 현안 문제점들을 보는 시각에 대해 더 좋은 감정을 갖도록 만드는 것과 같이 이들 언론 매체에 대한 PA 활동의 지속적인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4. 지역 사회 노력의 지원

원자력 설비 부지를 성공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어 지방 정부나 후보지의 역할은 대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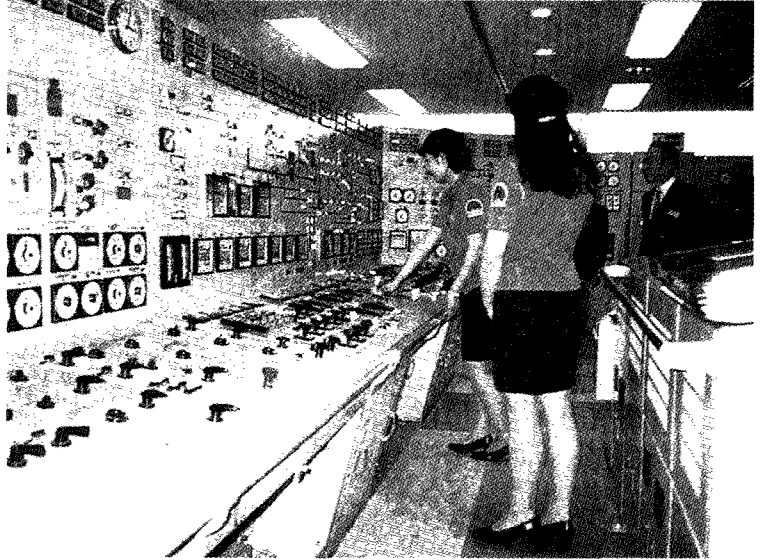
이렇게 JAERO는 지방 정부의 PA 활동을 지원하여 주민들과 산업계 상호간에 유익한 원자력 설비와의 공존의 필요성을 주입시킴으로써, 원자력발전소를 그 지역 공동 사회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82년 통상산업성의 지원을 받아 지역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이 시스템의 틀 안에서 JAERO는 지방 자치 단체와 협조하여 지역 원자력 PA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가. 원자력 홍보 연락 회의

통상산업성과 63개 현 그리고 각 시 당국 대표들을 위한 원자력 홍보 연락 회의는 일년에 두 번씩 개최되는데, 한번은 동경에서 또 한번은 그 밖의 도시에서 열린다.

통상산업성의 정보 담당 공무원들이 국가의 원자력 정책을 설명한 후 질의 응답을 하며, 모든 참석자들간에 원자력 홍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경험과 의견도 나누고 있다.



일본 아오모리현 미쓰에 있는 과학기술 박물관 내부. 원자력 PA 활동은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여 쌍방간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나. 원자력 전문가

원자력 설비가 있거나 또는 후보지 지방 자치 단체의 요청에 따라 JAERO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강의 또는 훈련을 시키거나 토론회에 참석시키고 있다.

96년 JAERO는 일본 전국에 걸쳐 97차례나 이를 실시했으며, 동 행사에는 총 11,744명이 참석했다.

다. 원자력 세미나

JAERO는 지방 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들을 위해 3단계로 나누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즉 원자력에 관한 기초 지식을 다루는 초심자 코스와 원자력 관련 업무 처리 실무 능력을 부여하는 실무자 코스,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 고위직에게 원자력 현안 문제 등에 관한

주요한 참모 역할을 할 사람들을 위한 리더십 코스가 그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발전소 입지 대책과 어촌 진흥, 원전 연료와 플루토늄 사용, 그리고 방사선과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효과 같은 당면 문제에 대한 특별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다.

96년의 경우 7회에 걸쳐 103명이 참석하였는데, 이들 특별 세미나 개최의 목적은 소규모에다 강도높은 토의를 통해 지방 자치 단체 사람들의 원자력 문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 있었다.

라. 강연 등

현재 운전 또는 건설중인 원전 연료 주기 시설이 있는 아오모리현의 6개 도시에서는 에너지와 환경 문제 그리고 지역 개발과 같은 주제에 대

한 강연과 심포지엄이 개최되고 있는데, 이는 이 시설물들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기반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96년에는 이들 강연과 심포지엄이 6회 개최되었으며, 모두 2,160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바 있다.

또한 JAERO는 현 또는 그밖의 여러 곳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를 파견하여 18회에 걸쳐 총 1,003명이 참석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결론

현재 추진중인 여러 과제 중에서 원자력 PA를 위한 최대의 도전이라면, 95년 몬주 고속 증식로 나트륨 누출 사고와 97년 도카이 재처리 공장 비튜멘 고화 설비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 사고의 결과로 상실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과 나아가 원자력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지원하는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JAERO의 역할이 참으로 중차대하다 하겠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21세기를 전망할 때 원자력 PA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1. 신규 원전 입지 대책

일본에는 현재 53기의 원전(총 45,240MW)이 운전중에 있으며, 다

른 1기(820MW)가 건설중에 있고, 여러 가지 건설 준비 단계에 있는 4기(4,660MW) 등 도합 58기(50,720MW)의 원전이 있다.

이외에도 기존 발전소 증설 차원에서 기존 부지 옆에 추가 호기의 건설을 계획중에 있는데, 예를 들면 북해도전력의 도마리 원전 3호기, 동경전력의 후쿠시마다이치 원전 7·8호기 그리고 중국전력의 시마네 원전 3호기 등이 그것이다.

중국전력의 가미노세키 원전 1·2호기는 완전히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증설지점(增設地點)의 입지 대책은 비교적 순조로이 추진되고 있으나 완전히 새로운 원전의 입지 상황은 꽤나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신규 원전의 입지 대책이 현안 문제로 되어 있어 지역 개발 지원 노력에 대한 재검토와 적절한 PA 활동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2. 경수로의 MOX 연료 사용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원전 개발을 위해 일본은 사용후 연료를 재처리하여 경수로 원전에 사용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MOX 연료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금년 2월 동경전력과 관서전력 그리고 그밖에 9개 전력 회사는 2000

년까지 4기 원전에서, 2010년까지는 추가로 12기 내지 14기의 원전에서 사용할 MOX 연료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MOX 연료가 사용 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이해를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PA 활동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3.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와 처분

재처리 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와 처분은 향후 PA 활동의 중대한 초점이 될 것으로 본다.

금년 7월 원자력위원회(AEC) 산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HLW) 처분의 기본 개념」이라는 제목의 중간 보고서를 작성·배포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폐기물 처분 사업을 수행할 기구를 2000년까지 설립하고, 2030년과 2040년대 중반 사이에 이 처분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이들 목표 달성을 향한 순조로운 추진은 폐기물 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구축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지원하기 위한 PA 활동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하겠다. ☞